

‘가족’ 무엇이 규범이고 무엇이 예외인가?*

정 인 경**

195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의 황금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황금기로 간주된다. 북미와 서유럽의 결혼의 역사를 연구한 쿤츠(S. Coontz)는 이 시기를 결혼의 역사상 전례 없는 독특한 순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1950년대 ‘장기 십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야 하고 남성이 생계를 부양해야 하며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자기를 실현해야 한다는 규범이 다른 모든 견해들을 확실하게 압도했다.¹⁾

물론 오늘날에도 인구의 다수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을 구성하고 있지만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이전의 문화적 합의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동거율, 이혼율, 연령대 별 결혼율과 출산율 등의 지표를 보면 결혼·가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 현상은 성별관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관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관계들을 조직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필요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족이 생계의 유지, 양육, 부양 등을 조직하는 안정적인 단위였다는 데에 주목한다. 즉, 가족생활은 특정한 규범과 규칙을 따랐고

* 엘리자베트 백·게른스하임,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2005)에 대한 서평

** 서울대

1) Stephanie Coontz, *Marriage, a History*, Viking, 2005(국역, 『진화하는 결혼』, 작가정신, 2009).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것을 복원하려는 의지만으로 현실의 경향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은 노동의 신축성(flexibility)이 규범이 된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는 양성의 관계, 세대 간의 관계를 규정하던 과거의 제약과 규범이 해체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전통적인 결혼·가족 규범은 붕괴했지만 새로운 가치와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최소한 무엇이 예외이고 무엇이 규칙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새롭게 부상한 다양한 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인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이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이다. 개인화란, 계급·종교·관습 등이 부과한 과거의 안정적 해법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선택들이 개방되는 동시에 개인의 고유성과 주도성이 장려되는 변화를 지칭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삶은 점점 더 개인이 선택하고 계획해야 할 어떤 것이 되는데, 말하자면 인생행로 자체가 개인이 ‘계획하는 프로젝트(planning project)’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인화가 가족, 결혼, 부모 되기의 영역에 침투하고 이로 인해 성별관계와 세대 간 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사례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제시한다. 결혼 시기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부모 되기 즉, 출산 시기의 조정과 선택, 이혼의 선택, 재혼의 선택, 부양의 선택 등의 측면에서 가시화된 변화들이 그 예이다.

그런데 개인의 몫이 된 이 같은 선택들이 때로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개인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특정한 선택들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전문가’들이 이리저리한 조언을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술의 발달은 산전 검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개인들은 이를 통해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전적 비정상성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은 태아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는 등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 부양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계속 인공호흡기를 부착할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화는 한편으로 자신만의 삶을 강조하고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된 환경에서 여러 선택지들이 개방되면서 과거의 규범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족 유형과 생활양식이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부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화는 사실상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내맡기며, 때로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조건에서 선택의 압력을 부과한다.²⁾

이러한 압력 때문에 개인화는 유대, 친밀함, 공동체에 대한 갈망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저자는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의 몰락을 말하는 대신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답으로 제시한다. 물론 그것은 전통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다. 개인화의 과정이 추동하는 양가적인 경향으로 인해 개인들은 점점 더 친밀함을 추구하고 이것이 대안적인 가족, 전혀 새로운 유형의 가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삶에 주목할 때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의 안전성이 붕괴하고 가족 임금(family wage)이 해체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되자, 여성의 유급 노동 진출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스스로를 부양하고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자립적 존재로서 개인의 이미지가 여성에게로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여성은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양육과 부양의 부담을 더 이상 홀로 지려 하지 않는다. 즉, 여성은 결혼의 선택에 신중하고 동거를 통해 배우자를 시험하고 이혼을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현상들은 변화된 현실에서 여성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2) 예컨대 오늘날 특정 계층의 개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도 하다.

필연적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이자 새로운 배열의 가족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친밀성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가족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의 추구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 설계와 매순간의 전략적 선택이 수반하는 엄청난 부담을 완화하는 한 방법이 안정적인 유대, 친밀성의 관계 형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관계 형성의 법적 형식, 횡수, 지속성, 그리고 성별분업의 형태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를 주창하는 이들은 가족의 위기와 붕괴를 개탄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규범적 주장만으로 변화된 현실을 따라잡거나 그에 대처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변화를 추동한 객관적 경향과 그것이 낳은 현실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좋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결혼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래의 전통적 결혼, 쇠락한 도덕적 가치의 복원을 주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사회 문제들을 음미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은 충분히 유용하며 일독의 가치가 있다.